

대한상의 브리프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팀장



제40호 2017년 11월 13일



편집자주

지난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관계 개선’ 협의의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유통업계도 對중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한·중관계의 해빙 무드가 본격화될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중국 전문가가 들여다 본 한·중 경제협력의 현 주소와 향후 대응방안을 되짚어 봤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발표’, 사드 갈등 봉합되는가?

장장 15개월 간 끌던 한·중 간 사드 갈등의 출구가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일제히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작년 7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된 이후 계속된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일단 봉합했다.

지난해 8월 한한령(限韓令)으로 시작해 올해 3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등 사드 보복 여파로 국내 관광산업은 물론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중 간 사드 갈등 관련 일지]

구분	주요 내용
’16. 2월	한미, 사드 배치 협의 결정 발표 中 외교부, “사드 배치 반대”
’17. 2월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17. 4월	사드 전격 배치 착수
’17. 6월	시 주석,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거론
’17. 10월	중국 19차 당대회 개최 한·중 외교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

※ 자료 : 외교부, 각종 언론 보도

앞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얻게 될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경제협력 여부에 따라 그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 만회 시간이 충분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사례에서 얻는 교훈

그동안 중국과 경제적 갈등을 경험했던 국가가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다. 우선 2008년 프랑스와 2009년 필리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던 사안이었다. 프랑스는 티벳문제,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었다.

사드 갈등으로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받은 것처럼, 프랑스는 유통업체인 까르푸(Carrefour) 불매운동으로 확산된 바 있다. 필리핀은 다소 민감한 영유권 분쟁이어서 중국으로부터 바나나 수입금지와 관광 금지 조치 등의 보복을 받았다.

주목할 사례는 중국과 장기간 영토 분쟁을 이어갔던 일본의 경우다. 일본은 2010년과 2012년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 釣魚島)를 두고 두 차례 영토 분쟁에 휩싸였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2010년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쿼터량을 40% 축소했고, 이에 일본은 WTO 정식 제소로 대응해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하지만 그 앙금으로 2012년 중·일 간 분쟁이 재발하며, 자동차 등 중국 내 진출기업 제재와 함께 관광금지 조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2012년 74억 달러에서 2016년 31억 달러로 지속 하락했다. 더욱이 중국의 對 일본 수입도 약 57개월(2011.11~2016.7) 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양국 간 경제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일본이 경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아세안(ASEAN) 시장을 전략기지화 하는 동시에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오히려 중국시장에서의 현지화 전략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투 트랙(Two-track)전략'으로 대처한 것이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일본 승용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영토 분쟁이 심화되던 2012년 약 16%에서 2016년 15.6%까지 다소 하락했으나,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간 사드 갈등 여파로 약 18%까지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한국 승용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3.8%로 2016년 7.4%보다 반 토막 난 상태이다.

사드 갈등과 한국경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투자, 유통(면세업 매출 규모), 관광, 문화콘텐츠 등 5가지 측면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드 갈등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전체 명목 GDP의 0.52%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다.

그렇다면 수출, 투자, 관광(면세 매출 포함) 등 3가지 부문에서 실제로 어떤 양상이 나타났을까?

우선 우리의 對中 수출은 중·일 간 분쟁 당시와 비교해 피해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올해 1~9월 누적으로 對中 수출 증가율은 13.4%로 지난 3년간(2014~2016년) 마이너스 증가율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화장품(HS 33 기준) 품목의 對中 수출도 비록 올해 4, 5월 각각 3.1%, 15.0% 감소했으나, 6~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는 한·중 양국이 모두 냉각됐다. 모두 사드 갈등 요인으로 보긴 힘들으나 중국의 對 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가 2017년 3분기 약 88% 감소했고,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투자금 기준)도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두 나라 모두 경제적 교류가 냉각된 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상품을 중단한 지난 3월부터 방한(訪韓) 중국인의 감소세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올해 1~9월까지 누적으로 방한 중국인은 319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치 633만 명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그러나 면세업 매출액은 4월을 제외하면 5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9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12.3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는 다이캐우(代購, 보따리상)와 산커(散客, 개별관광객)가 늘면서 면세점 손실을 상쇄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2017년 7월 국내 여행수지는 약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숙박업, 음식점 등 중국 관광객을 겨냥했던 관련 서비스업 피해가 오히려 컸다고 볼 수 있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결과적으로 한·중 사드 갈등은 중·일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제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 등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 관광 금지, 한류 제한 등을 통한 중국의 사드 제재가 2012년 중국이 일본에게 했던 수출, 투자, 관광, 문화 등 전방위적 조치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장기화되었다면 중·일 갈등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형세 역전 위한 전략적 노력 필요

이번 사드 갈등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느낌은, 겉으로는 중국이 이해하고 양보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기업이라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득실을 따지고 앞으로의 형세에서 우위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준비다. 오는 12월이면 어느새 발효 2년째가 되는 시점이다. 시진핑 집권 2기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온 성장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19차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꿈 (China Dream) 실현에 대한 단계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방향은 인터넷과 IT를 융합한 프리미엄형 서비스업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 향후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실현 단계별 구상]

구분	주요 내용
~ 2020년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2035년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경제 과학 발전을 바탕으로 한 혁신국가
2035~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미국을 넘어선 세계 초일류 국가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 자료 : 각종 언론 보도

차세대 유망 업종의 차별화된 기술혁신도 필요하다. 중국의 제조업 부품 자체 조달률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의 對中 수출 중 하이테크 부문 수출 비중은 2000년 20.6%에서 2016년 43.7%로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가속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현지화 전략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글로벌 제품 이미지로 바꿀 수 있도록 중국 소득 상위계층을 겨냥한 고급형 소비재를 준비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1월 1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0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31	1,161	1,125	1,130	1,134	1,131	1,132	1,132
원/엔	934	1,068	1,003	1,019	1,009	1,030	1,022	1,002
원/위안	180.1	174.4	163.5	166.1	167.5	169.2	172.3	171.1
원/유로	1,255	1,283	1,245	1,269	1,306	1,337	1,348	1,331
유가(Dubai)	32.2	53.8	50.1	46.5	50.4	49.3	55.2	58.3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1.9	3.0	2.6	1.7	2.0	2.6	7.4	-
소매판매	4.1	4.3	1.4	1.1	3.5	0.8	8.3	-
설비투자	6.9	-1.3	20.0	18.6	25.1	13.2	25.2	-
수출	-8.0	-5.9	13.1	13.4	19.5	17.3	35.0	7.1
수입	-16.9	-6.9	19.1	19.8	15.5	15.3	21.7	7.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